

여성 소설로서의 신경숙 소설 읽기

송지현*

1. 머리말
2. 이중 전략으로서의 '타자성' 구현
3. 억압된 욕망의 비극적 침몰
4. 자연의 생명성과 도시 문명의 힘
5. '자매애'에의 동경과 단절
6. 맺음말

초록

이 논문은 신경숙의 소설을 페미니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의 소설에는 여성적인 인물과 분위기가 가득하여 남성들의 시각에 의해 '타자화'된 여성 인물이 등장하며 여성적인 특질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녀의 작품 중에서 대중에게 인기가 있었던 작품들—『깊은 슬픔』과 『외딴 방』, 『풍금이 있던 자리』, 그리고 『배드민턴 치는 여자』—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그의 소설에 나타난 '타자성'의 이면에는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고, 그 경험에는 남성중심적인 세계에 반발하는 페미니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작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성 세계의 원칙을 따르는 동시에 반역을 꾀하는 이중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이는 여성작가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깊은 슬픔』은 오직 사랑으로만 살고 싶어하는 여주인공의 상처와 좌절을 보여준 작품으로 상실의 아픔이 가득하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현실과 출세를 중시하는 남성적 원리와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중시하는 여성적 원리의 충돌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배드민턴 치는 여자』는 미혼 여성의 성적 욕망과 그것을 억압하는 사회, 그리고 좌절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자신의 성적 욕망이 분출하려 함을 느끼면서도 남성중심

*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연구원

적 사회의 요구와 평가를 두려워 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마는 여주인공의 비참한 처지를 그리고 있다. ‘배드민턴을 치는 여자’의 모습은 자기 욕구 표현에 적극적인 여정의 성적 이미지를 띠고 있다.

또한 그의 소설에는 자연의 생명 현상을 응시하는 감수성이 넘쳐난다. 자연과 문명의 충돌, 고향과 도시의 이질성이 그려지면서 자연 속에서의 행복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에코-페미니즘적 요소를 읽을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여성들끼리 동일시 할 수 있는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의지하는 레즈비언 연속체의 지향도 볼 수 있었다.

지극히 여성적인 작가로 알려진 신경숙 소설은 이처럼 페미니즘적인 지향을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1. 머리말

남성(male), 이성(reason), 사실성(reality)이 지배해 온 지금까지의 세계와 결별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는 여성(female), 감정(feeling), 허구(fiction)로 가고 있다. 소설에서 보자면, 논리적 인과구성에 의존한 확실한 플롯은 희미해져 가고, 다양한 서사 기법들에 의한 ‘주제 감싸기’가 더욱 활발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 뛰어난 감수성과 감각적인 문체로 문단과 독자의 집중적 응시를 받아 온 신경숙은, 이런 점에서 보아도 앞으로 그 문학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꾸며낼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지금까지 신경숙의 소설들은 지극히 여성적인 작품들로 읽혀져 왔다. 이는 우리 문학사에서 신선하고 감각적인 문체 혁명을 이뤄냈다 할 만한 1960년대의 김승옥과 견주어지는 독특한 문체, 망설임과 속삭임, 주저함, 머뭇거림이 빚어내는反속도감이 형성한 작품의 분위기와 아득해진 고향과 유년기에 대한 섬세한 회상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녀의 작품들은 늘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며 유년 시절의 낙원에 대한 회상을 담고 있다. 그의 소설들을 대하노라면 아득히 멀어져 간 옛 고향마을이 떠오르고 매연과 소음에 의해 가려졌던 작고 미세한 소리들이 들려 온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경숙의 소설들이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보수적 여성 인물만을 형상화하며 그 세계에 순종하고 동조하는 여성관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글은 어떤 여성작가가 자신이 페미니즘을 특별히 옹호하거나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 작품은 작가 자신의 여성 체험을 토대로 구성되며 남성 중심 세계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충분히 내재할 수 있음을 밝혀 보려 한다. 신경숙의 소설들을 여성 소설로서 읽고 해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서’와 ‘세’ ‘완’ 사이의 ‘비껴 가는 사랑’과 ‘등돌리기’에 의한 상처를 통해 폐허처럼 시들어 간 ‘은서’를 보여주고 있는 『깊은 슬픔』과 산업학교 시절의 자전적 소설인 『외딴 방』, 애잔하고 서럽지만 아름다웠던 ‘그 여자’를 보여준 「풍금이 있던 자리」, 미혼 여성의 성적 욕망과 남성사회의 징계를 그린 「배드민턴 치는 女子」 등 독자들에게 특히 많이 읽혀졌다고 생각되는 대중적인 작품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신경숙 소설의 대중성과 문학성의 동시적인 획득은 여성 체험의 소설적 형상화에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잊혀진 ‘꿈’을 떠올리게 하는 그의 작품들은 그 의미가 독자들 자신의 스키마(schema) 속에서 유연성과 탄력성을 지닌 채로 다양하게 되살아날 수 있게 하는 마력을 지녔다. 그리고 그것들은 작품 속에서 능히 사로잡힘을 가능케 하는 매혹의 문체로 살아난다. 하지만 여성 독자의 입장에서 그의 소설을 대할 때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숨겨져 있거나 드러나고 있는 징후들을 명백히 찾아낼 수 있으며 이는 ‘반(反)남성주의’에 닿아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이중 전략으로서의 ‘타자성’ 구현

현역 여성작가 중에서는 신경숙만큼 여성적 특질을 잘 드러낸 작가도 드물다. 그의 소설은 인물과 문체 등 소설의 거의 모든 국면에서 여성들

의 독특한 경험과 문화를 상기시킨다.¹⁾ 그래서 장정일은 그녀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이나 화자가 가부장 사회의 도덕에 부합되는 여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즉, 그들에게서 우리는 늘 수동성, 민감함, 섬세함, 모성, 감정 등과 같은 통념화된 여성적 특징들을, 잊기 힘들만큼 생생하고 풍부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몇몇 비평가들은 신경숙에게서, 궁극적으로 여성에 대한 억압과 통제의 권력을 남성에게 확보해주는 ‘타자성’의 이미지들을 읽어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여성들 자신의 욕망이 아닌,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욕망이 투사된 ‘타자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성들의 폭력에 대항하고 여성이 처한 세계의 모습을 진실되게 직시케 하는 소설만이 가부장제적 통념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일까? 힘과 투쟁은 사실상 그동안 남성적 세계에서 누누이 사용되던 전사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독자들을 페미니즘 소설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대중성의 한 부분에는 문학성이 반겨주는 몫이 있고 이것은 작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소설적 가공 방식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이다. 현명한 여성작가라면 오히려 친화적인 접근력을 갖기 위해 여러 전략을 사용할 것이고, 이것이 대중성을 확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여성작가인 신경숙은 어떠할까? 그녀가 가부장제 사회를 살아오면서 또 그 전통 속에서 살아 남으면서 느낀 분노와 반감은 없었을까? 그것들을 덤덤히 수용해 혼자 삭혀 내더라도 여전히 남게 되는 ‘진실의 덩어리’와 직시하게 되지는 않았을까?

여성의 글쓰기가 제한되고 환영받지 못했던 시대에 많은 여성작가들은 작가로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지 ‘이중적 전략’을 펴왔다.²⁾ 표면적으로는 남성중심사회를 거부하는 저항 의지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여성의 독특한 상상력을 통해 자신들의 억압된 무의식을 간접

1) 황종연, 「여성소설과 전설의 우물」, 『문학동네』(1995. 가을), p.45~46.

2) 송지현, 『다시 쓰는 여성과 문학』(평민사, 1996), p.131~132.

적으로 표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코믹 비전을 통해 꿈꾸는 일을 계속 하거나, 은밀한 광기와 히스테리를 공포소설 양식에 숨겨내기도 했다. 작품을 출판하고 작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성작가들이 나름대로 직시한 성적 정체성에서 비롯된 진실을 내면화시킬 수밖에 없었고, 작가 자신들이 의식하는 의식하지 못하는 간에 이는 작품 내에서 개별적인 문학적 장치들과 결합하게 되었던 것이다.

신경숙의 경우 의도적으로 여성이 처한 부당한 현실이나 억압을 형상화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여성 체험이 글쓰기에 반영되어 ‘타자성’을 구현하되 결과적으로 이 같은 ‘타자성’이 마주치게 되는 비극성을 동시에 주목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본의 아닌 ‘이중 전략’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독자들에게 다중적으로 읽혀질 수 있는 폭넓음을 제공하였고, 수년 동안 독서계의 주류를 이루는 여성 독자들의 개인적 체험에 맞닿음으로써 문학과 대중성의 동시적 획득이라는 영예를 쥐게 되었던 것이다.

『깊은 슬픔』의 주인공 은서는 그야말로 맑고 투명한 여성성의 상징이다. 작품 초입에 석류알을 씹아 으개면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그녀의 모습이나 정성스레 요리를 하는 모습, ‘세’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 방식을 ‘완’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며 마음 아파하는 그녀에게서 떠올리는 이미지는 곧 으스러질 것 같은 연약함, 자신의 열정을 내면으로 침잠시켜 평정하는 고요, 한없는 눈물 등이다. 또한 누구든지 외롭고 힘든 사람을 꼭 껴안아 위로해 줄 것 같은, 따스한 밥과 국으로 그 마음을 훈훈하게 해 줄 것 같은 모성적 이미지이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참혹하게 변해 간다. ‘완’의 등돌림 후에 어렵사리 마음을 향하게 된 ‘세’의 냉혹한 돌아섬을 경험한 이후 그녀는 집안에 갇혀 스스로 썩어져 가는 병든 모습으로 변함으로써 ‘사랑은, 사랑은 불가항력이라고 여기는 여자’(상권, 10면)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서의 깊은 상처를 그려내고야 만 것이다. 불가능한 사랑에 대한 추구가 여성에게 가하는 고통의 참혹함³⁾은 결국 마지막 유서

3) 황종연, 앞의 글, p.50~51.

에서 이수에게 “너는 너 이외의 다른 것에 닿으려고 하지 말아라. 오로지 너에게로 가는 일에 길을 내렴. 큰 길을 못 가면 작은 길로, 그것도 안 되면 그 밑으로라도 가서 너를 믿고 살거라”고 당부한다.

“사랑…… 사랑으로 살기엔 이미 늦었어”(상권, p.124)라고 말하며 세상으로 향한 욕망의 실현을 위해 박효선과의 결혼을 결심하는 ‘완’. 또한 그토록 원하던 ‘은서’를 마침내 얻었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자신과 상대방을 괴롭히는 의처증 환자가 되고 만 ‘세’. 그들은 감각적인 문체를 통해 형상화된 아름다운 꺼풀만 벗기면 곧바로 현실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성들로 살아난다. 그리고 은서의 유언은 사랑에 자신을 온통 내맡겼다가 감기감기 삼쳐입고 배신당한 ‘그녀들’의 흔하디 흔한 충고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깊은 슬픔』의 세계는 사랑이 상실된 비애의 정서이다.⁴⁾ 그래서 불가항력인 사랑의 실패를 통해 존재의 근원적인 고통을 그려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 여성 작가와 여성 독자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타자성’의 소설적 구현을 통한 ‘타자성’의 거부라는 이중 전략이 읽혀지기도 한다.

이는 「풍금이 있던 자리」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말줄임표와 쉼표로 특징지워지는 한없이 애잔한 문체로 독자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퍼지게 하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탁월한 작품이다. 이 외의 점을 살펴볼 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까지 가부장제 하에서 늘상 ‘마녀’로 묘사되어 온 ‘제2의 여자’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은 점이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물론, 멋지고 윤택하게 살림을 매만지는 솜씨, 게다가 그 동안 관심밖에 놓여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화자에 대한 관심까지 보이는 그녀는 ‘마녀’가 아니라 ‘천사’이다.

여자는 마당의 늦봄별을 거느린 듯 화사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토록 뵈

4) 우찬제, 「타나토스/ 에로스/ 에코스」, 『타자의 목소리-세기말 시간의식과 타자성의 문학』(문학동네, 1996), p.96.

안 여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여자에게서는 그때껏 제가 말아본 적이 없는 은은한 향내가 났습니다. 그 여자가 움직일 때마다 그 향내는 그 여자에게서 조금 빠져나와 제게 스미곤 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집에 음식을 만들러 온 여자 같았어요, 멍쌀보다 뽀얀 찹쌀로 둥근 경단을 만들어 내놓기도 했고, 곤로를 마당에 내놓고 진달래 화전을 부쳐주기도 했어요. 찹쌀로는 그저 시루에 찰떡만 찌주셨던 어머니. 그 여자는 어느 날 대추 밤을 썰어넣어 찹쌀 약식을 해주었죠.

그 여자는 오빠들 속에 섞여 있는 저를 알아봐줬던 것입니다. …… 그 여자가 제 인상에 각인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자가 저를 알아봐줬기 때문이에요.

그 동안의 많은 작품들이 ‘계모’와 ‘제2의 여자’에 대해서는 너무도 냉혹했다. 늘상 그녀들은 간사하고 교활하며 전처의 자식들을 시기하거나 진실한 사랑보다는 돈과 권력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만 묘사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묘사는 가부장제의 사회적 통념을 반영한 것이면서 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상식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힘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풍금이 있던 자리」에서, 어느 봄날 찾아와 스무 날쯤 살았지만 눈이 통통 부어 찻술질하다가 스스로 떠난 ‘그 여자’는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여자로 우리에게 각인된다.

하지만 작가의 눈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가부장제 사회의 한 쪽에는 나무랄 데 없이 화사한 ‘그 여자’와 그 여자처럼 되고 싶었던 ‘나’가 있지만, 다른 한 편에는 강보에 싸인 아기를 두고 젖이 붙어 고통을 당하면서도 집을 나간 ‘어머니’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다고 쓰러져 통곡하는 스포츠센터의 한 중년 부인, 그리고 다리를 절름대며 울면서 줄넘기를 하곤 했던 ‘점촌댁’ 할머니의 피맺힌 절규가 있음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여자처럼 되고 싶었던 내가 결국 기억하는 말은

“나…… 나처럼은…… 되지 마”라는 마지막 당부였다.

가부장제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동안 왜곡되게 형상화되어 온 권력 주변의 여성들, 즉 ‘타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다중적 울림을 가능케 한 것이 이 소설의 강점이라 하겠다. 이 작품을 대하는 독자라면 누구나 유부남을 사랑하는 여자의 안타까운 처지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는 가부장제 사회의 윤리 의식에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타자성’을 거부하고 반발하면서도 ‘타자성’에 의해 구현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현실성을 잊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중 전략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눈을 갖게 하면서도 안정감을 줌으로써 대중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3. 억압된 욕망의 비극적 침몰

「배드민턴 치는 女子」는 보기 드물게 미혼 여성의 성적 욕망과 그것을 억압하는 사회, 그리고 좌절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신경숙은 ‘문체 미학의 백미 소설가’ 또는 ‘감성적 글쓰기의 대가’라는 세간의 평대로, 우연히 만나게 된 한 남자에 대한 집착과 사로잡힘, 그것이 빚어내는 착시 현상을 너무도 매끄럽게 잘 표현하고 있다. 더구나 주인공인 ‘그녀’는 화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20대 미혼 여성으로 약간 따분해 보이지만 하지만 그런 대로 화초를 돌보는 재미를 느껴가며 가끔씩 글쓰기를 통해 그 글 속으로 숨기도 하는 평범한 여성이다. 그런데 아주 차분하고 약간 수줍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녀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성적 욕망의 억압을 조명한 점이 특히 이 작품을 빛나게 하는 점이다.

90년대 들어 많은 여성작가들의 작품에서 여성들의 성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성행위는 흔히 허무의 몸짓이든지, 아무리 좇아도 잡히지 않고 한없이 미끄러지는 삶의 실체, 또는 파괴된 가족이나 일상성으로부터의 탈출과 연결된다. 하지만 이 작품처럼 욕망은 지녔지만 스

스로 이를 억압하고 괴로움을 겪는 한 여성이 너무도 쉽게 성폭행의 대상이 되는 현실 세계를 조명하고 있지는 않다.

작가는 먼저 암전하고 평범하게 보이는 아가씨에게도 분명 성적 욕구가 존재하는데, 그 동안 남성 중심 사회에 의해 길들여진 대로 그녀 자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그저 떨쳐 버리려고 고심한다는 것. 그래서 자신과 사회가 '그녀들'의 욕망을 억압하며 이 욕망은 결국 건전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물화하는 남성 인물에 의해 비극적으로 침몰하게 되고 마는 참담한 현실을 조명하고 있다. 물론 현실의 한쪽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도사 보드리야르(J. Baudillard)의 말처럼, '성이 폭발하고 욕망이 창궐하는 시대'로 진단된다. 구닥다리 관습과 구속과 위선에서 벗어나 감성과 욕망과 육체의 해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환호 소리도 만만치 않다.⁵⁾ 하지만 다른 한 쪽에는, 많은 여성들이 정숙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 또는 혼전 섹스에 의해 초래될 불행을 염려하며 보수적 사회 관습에 짓눌려 초조해 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 배수아, 송경아, 김별아⁶⁾ 등이 한쪽 끝에 있다면, 신경숙은 그 반대쪽 끝에 있다. 그리고 대다수 미혼 여성들은 아직도 신경숙 편에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사회에서 힘과 지위는 남성들에게 속해 있고, '그녀들' 즉 현실 세계의 미혼 여성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순결성이 자신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순간적 계기에 의해 일깨워진 '그녀'의 욕망은 표출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엄연히 거대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아무 연대감을 갖고 있지 못한 그 남자에게로의 이끌림은, 가끔 한밤중에

5)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섹슈얼리티의 철학적 의미」, 『문화와 철학』(동녘, 1999), p.190.

6) 배수아, 「푸른 사과가 있는 국토」; 송경아, 「성교가 두 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학적 고찰 중 사례연구 부분인용」; 김별아, 「내 마음의 포르노 그라피」 등은 성 이데올로기의 해체적 면모를 보이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잠이 깨었을 때, 그녀 가슴을 훑고 지나가던 참담함, 그 불안을 막아주던 식물들의 위로, 지금 이 철쭉 같은 밤중에도 뿌리들은 흙 속에서 키를 키우겠지 싶어, 눈물을 삼키던, 그 위로까지도 뛰어넘어 그녀를 길게 울게 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로의 이끌림이 나홀 전부터가 아니라, 수천 년 묵은 슬픔으로 뿌리를 털고 있었던 것을, 이제 풀어낸다는 듯이 길게 울었다.

돌연히 찾아 온 남성이 벨은 찬사의 말에, 억압되어 있던 그녀의 욕망은 대상을 찾아 정착하게 된다. 하지만 비극은,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여성들, 특히 순결한 미혼 여성에게 있어서 성관계는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한 정서적 표현일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그녀’의 고통은 상내망이 그런 사람이 아님을 일면시도 무작정 이끌리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안다는 데 있다. 그래서 그녀의 자아는 이중으로 분열된다.

억압된 욕망을 분출시키고 싶어하는 이드(id)의 강렬한 당김과 그로 인한 열병은 너무도 뜨거운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찾는 것은 차가운 수영장과 온 몸을 흠뻑 적실 비이다. 하지만 그는 털어내지지 않는다. 죽이려 해도 다시 살아나고 잠시 없어졌다가도 다시 뒤쫓아온다. 환영에 사로잡힌 신경증 환자처럼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실상, 분출하고자 몸부림치는 자신의 욕망의 적절한 출구를 갖지 못하는 여성들의 가없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는 여성들이 성적 욕구를 표현하거나 분출하는 것, 심지어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불결하게 여기고 금기시해 왔다. 남성들의 ‘사내대장부’ 개념에는 다채로운 성 경험이 당연시되는 데 비해, 여성들에게는 ‘정숙함’이 미덕으로 강조되어 온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적 통념을 수용해 왔고, 생각으로는 저항하고 반발하더라도 남성세계가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 때문에 이를 무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여주인공 역시 이 같은 성에 대한 금기와 사회적 억압에 짓눌려 있고 그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인물로 그려진 것이다. ‘그’에게로 가고 싶은

본능(id)과 가서는 안 된다고 가로막는 초자아(super-ego)의 제동 사이에서 너무도 고통스러워하며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토록 억제할 수 없는 그리움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힘들게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는 모습은 이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하고 있는 성적 억압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⁷⁾ 이 여성인물은 억압의 고통과 자신이 ‘착한 여성’이 되지 못한데 대한 자책이라는 이중적 감정⁸⁾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여성인물의 설정은 여성이 늘 남성에게 의해 ‘보여지는’ 대상이 되고 마는 우리의 여성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직장이면서도 늘 ‘거리에 앉아 있는 기분’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여성인물의 설정은 상징적이다. 사실 그녀는, 길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름다운 꽃과 함께 ‘보여지는’ 대상으로 쇼 윈도우 안에 진열된 썸이다. 누군가에 의해 관찰 당하거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관음증의 대상으로 쉽게 부각될 수 있는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남성은 자신의 위치에서 세계와 그의 육체를 본다. 자신의 욕망을 느끼고 또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그러나 여성은 외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조차 타인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보여지는 존재’로, ‘시각적 대상’으로 살게 된다.⁹⁾ 남성의 시각적 대상이 되는 여성들은 자신의 육체를 부끄러워하도록, 또 자신의 성을 비여성적이고 비합법적이며 수치스런 것으로 생각하고 거부하도록 가르침받는다.¹⁰⁾ 또한 육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자들은 즉시 ‘거리의 여자들’로 여겨진다. 그래서 ‘배드민턴 치는 여자’는 운동을 위해 짧은 옷을 입고 경쾌한 몸놀림을 하고

7) 송명희, 「여성의 억압된 욕망과 남성중심의 성적 회통과 폭력」, 송명희 외, 『페미니즘과 우리 시대의 성담론』(새미, 1998), p.180~181.

8) 김혜숙, 「여성주의 인식론과 한국 여성 철학의 전망」, 『현대비평과 이론』 16호 (한신문화사, 1998), p.122.

9) 최지현, 「아름다운 남성을 보았는가—현대 한국여성의 의식에 대하여」, 송명희 외, 『페미니즘과 우리 시대의 성담론』(새미, 1998), p.52~53.

10) 팸 모리스,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문예출판사, 1997), p.113.

있지만, 그것은 순간 지하철 공사장 인부들의 눈요깃감으로 대상화되고 만다.

배드민턴 치는 여자들의 미끈한 다리는, 물고기들이 물살을 차내듯이 미술관 뜰의 잔모래들을 사삭, 차내며 명랑하게 움직인다. 바닥에 떨어진 공을 주울 때 짧은 진치마는 더욱 아슬히 올라간다. 어찌면 엉덩이가 보일 듯하다. 그녀는 지레 가슴이 설레어서 얼른 지하철 공사장의 인부들을 바라본다.

저년, 여우 같은 년들!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더 그러는 거야!

귀엽잖아, 놄! 우리 같은 처지에 돈 안 내고 어디 가서 공짜로 저런 구경을 하겠니? 이, 너는 피로가 다 풀리네 그래!

‘배드민턴’을 치는 것은 동그란 라켓 속에 공을 잡아넣는 성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이 자신의 성욕과 성행위의 주체가 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배드민턴 치는 여자’들은 보수적인 남성들에게 욕을 먹는다. 화자인 ‘그녀’는 ‘배드민턴’을 치고 싶지만, 못 남성들의 시선과 조소를 의식해 치지 못하는 여성이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 ‘배드민턴’치는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것은 그녀의 잠재된 성적 욕구를 그 자신도 당당하게 분출시키고 싶은 바람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도 신경숙은 여성 화자를 통해 여성의 성을 억압하는 사회와 그 억압에 길들여져 고통스러워하는 미혼 여성의 처지를 드러내면서도, 그 욕망을 표현했을 때 돌아오는 참혹한 징벌을 경계함으로써 보수적 성 윤리관에 항변하는 이중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자신의 욕망을 자신에게 내보이는 것만으로도 벅찬’ 그녀, ‘슬픔에 사로잡힌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고 있기만도 벅찬’ 그녀가 엉뚱하게도 기대고 싶어진 남자는 화원의 단골인 ‘최’였다. 마흔 살쯤 되어 수시로 능청맞게 자기 욕구를 표현할 줄 아는 중년 남자인 그를 택한 것은 물론 잘못된 일이다. 그에게는, 표현된 ‘그녀’의 욕망이 즉시 강간을 원하는 신호로

읽혀지고야 만다. “네가 뭘 원하는지 나는 알아!”하고 외치는 그의 거친 소리는 성폭행범들의 흔하디 흔한 자기 변명이다. 그녀의 귀가 통통 부어 오르도록 때리면서 일을 치렀으면서도, “나 죄 없어. 다만 니가 말 못하는 걸 내가 알아서 해주는 것뿐이야”하고 정당화하는 ‘최’는 그야말로 현실세계의 보통 남성처럼 보이며, 이 인물의 등장은 신경숙의 다른 소설들에 비해 아주 특이하게 여성독자들을 분노하게 할 요인을 형성하고 있다. 여성은 성욕을 지니지 않아야 하며 더구나 나태한 표정과 자극적인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성폭행을 당해 마땅하다는 남성중심사회의 불문율은 개정되어야 마땅할 악법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 작품에서 미혼의 여성작가인 신경숙이 주목한 것은 보수적인 성 윤리관의 옹호가 아니라 여성 욕망의 비극적 침몰이다. 「배드민턴 치는 여자」는 여성이 스스로의 욕망을 억압해야 하는 고통도 크지만 욕망을 표출했을 때 돌아오는 사회적 징벌의 참혹함은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고통에의 응시 이면에는 여자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만만치 않게 도사리고 있다. 우연히 표출하더라도 이내 왜곡되고야 마는 현실—‘그녀’는 욕망의 행위자, 능동적인 꼭지점, 즉 농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¹¹⁾ 왜 그럴 수 없는가에 대해 묻고 있다.

창피하고 서먹해서 겨우 한다는 말이, 남자들은, 남자들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였다.

여자는 그럴 수 없나?

좌중의 누군가가 되물었을 때 그녀는 어불어물, 여자들은, 여자들은, 글썽 여자들은…… 그러다가 또 한 번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숙어버렸다.

리얼리즘 작가도 또 페미니즘 작가도 아닌 한 여성 작가가 되묻는 질

11) Jerry Aline Flicger, 「도둑맞은 문구 : 텍스트의 패러다임으로서의 농담」, 맥락과 비평 현대문학연구회 편지, 『라강과 문학』(예림기획, 1998), p.129~130.

문,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는 자신의 여성 체험이 고스란히 반영된 가장 자연스러운 여성의식의 넘쳐남이다. 그녀는 “무엇이 여자인가요? ‘그녀’는 도대체 어떤 것을 원할 수나 있는가요?” 하고 묻고 있는 것이다.

4. 자연의 생명성과 도시 문명의 힘

신경숙의 소설에는 자연의 생명 현상에 응시하는 감수성이 넘쳐난다. 그의 작품을 읽노라면, 늘 대하면서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자그마한 자연의 변화, 느끼지 못한 작은 소리, 냄새를 느끼게 된다.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의 갑작스런 죽음과 운명적인 외로움, 연극배우인 여동생의 돌연한 자살로 닥쳐 온, 삶의 과정에서 북병처럼 찾아오는 불행인 ‘그’를 맞는 과정을 그려낸 「그는 언제 오는가」에서 여주인공과 제남이 연어가 회귀하는 남대천을 찾아 가 생명의 연속성을 체험하는 믿음은 탁월하다. 서늘한 새벽 들판에서 풍겨 온 ‘햇곡식의 싸한 냄새’(41면)와 그 냄새를 아는 사람의 따스한 심성에 대한 묘사는 자연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평화로움을 그대로 보여 준다.

그래도 나는 잠시 그러고 앉아 있었다. 햇곡식의 싸한 냄새. 하늘은 어찌 이런 냄새를 만들어 냈을까. 이런 냄새를 맡고 있으면 아직 단 한 번도 발음해 보지 못한 말을 하고 싶어진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같은 평화로움은 도시에서 유지되지 못한다. 절망과 죽음, 외로움이 늘 가득하다.

「배드민턴 치는 여자」에서의 주인공은 꽃집 아가씨다. 타이피스트를 지망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어느 날 우연히 창에 붙여진 광고를 보고 화원의 종업원으로 취직해 초록의 화초들을 돌보고 있는 그녀. 그녀는 자

신이 원했던 일이 아니었던 지라 처음에는 푸르름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던 그녀가 차츰 화초 돌보는 일에 취미를 붙이게 되고 피붙이에 게서나 느끼는 본능적인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 퇴근 후에 다시 화원을 찾기가 쉬워진다. '식물들의 초록빛은, 그녀에게서 이미 희미해진 꿈조각이나 실타래같이 영긴 기억들까지 일깨워주려는 양으로, 늘 푸르게 웃자라 주었던 것이다.'(164면) 외로움에 빠진 사람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환경 속에서 애정을 쏟을 대상을 찾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온실의 초록빛은 잊혀진 '꿈조각'과 이어지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하지만 그 곳은 대자연이 아닌, 도시 한 복판의 작은 화원이다. 사냥이나 대량 생산보다는 채취와 물건을 통해 가족의 식생활을 보살피며 자연과의 일체감, 친화력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던 대자연은 도시 속의 여성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남성성과 문명의 상징인 도시의 한 복판에서 그나마 녹색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작은 화원, 거대한 아마존 정글이 아닌 '유리 온실'이야말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만나는 지점이다. 자연의 생태계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공간이 아니라 인공으로 축조된 화원과 그 곳에 갇힌 자연. 그래서 그녀의 생명성은 뺏어 나가지 못하고 좌절되고 만다.

폭행을 당한 후 정신을 온통 무엇인가에 내맡기고 있어서 '헛겍데기'가 되어 버린 그녀가 찾아간, '배드민턴 치는 여자들'이 있던 미술관 앞 공터. 그 곳에서 마주친 거대한 포클레인. 이 포클레인의 모습에 도전하는 여주인공의 참혹한 저항은 너무도 무분별해 보여 거의 광적으로까지 보인다.

그녀가 힘껏 손톱으로 포클레인 몸체를 긁어본다. 포클레인은 긁혀지지 않는다.

그래도 계속 긁어대니, 그녀 손톱이 부서져 달아난다. 그녀가 이제 포클레인 아무곳이나 몸으로 밀어보고 있다. 미는 게 아니라 부딪쳐보고 있다는 표

현이 맞을 것이다. 몇 발짝 떨어져서 힘껏 달려들어도 포클레인은 꿈적도 안 한다. 그녀는 어마어마한 곳을 쳐다보는 양, 포클레인 아가리를 오래 쳐다보더니, 신발을 뺀 채 꼬끼꼬끼 포클레인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정강이가 쇠붙이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났고, 기어가느라고 엎드린 몸을 펼 때는 포클레인 모서리에 그녀의 가슴살이 꽤 찢겨진다.

이 장면은 분노와 상실감이 뒤얽힌 여주인공의 저항을 처연하게 그리고 있다. 여성 욕망의 억압은, 남성문명과 산업사회의 산물인 포클레인이 생명의 여신인 대지에 가한 피흘림으로 상징화되고 있다. 자본주의와 물질문명의 ‘발전’은 자연-여성의 식민화를 통해 가능¹²⁾했기 때문이다. ‘발전’이란, 여성의 착취와 사언과 타문화와 그 땅에 대한 파괴에 기초한 근대 서구 가부장제 경제체제의 확장을 일컫는 말이고, 그 발전의 중앙부에 포클레인이 있다고 볼 때, 그녀가 당한 능욕은 지구가 겪는 생태적인 능욕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작가는 감지한 것이다.

남성적 문명에 의한 거부감은 『깊은 슬픔』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은서’의 생명선은 사실 ‘이슬어지’에 닿아 있다. 현실적 필요에 의해 박효선을 선택하는 ‘완’은 도시를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여긴 이슬어지가 아니야”라고 말한다.¹³⁾ 진정한 에로스를 훼손시키고 마음의 황무지를 만드는 것은 도시 탓이다. 은서는 말하자면 실현될 수 없는 꿈, ‘사랑으로 살기’를 꿈꾼 사람이고, 그 꿈은 ‘이슬어지’에서나 실현 가능한 것인데 이미 그곳을 떠나 왔고, 그래서 참담한 실패를 맞본 채로 비참하게 죽어간 것이다.

신경숙 소설에서 말하는 행복은 인간이 자연의 소리를 듣고 일체감을 느끼며 사랑하는 그 순간에 느껴진다.

12) 고갑희, 「능욕과 식민의 역사 다시 쓰기」, 『21세기 문학』 3호, 1998. 봄·여름, (isu, 1998), p.104~105.

13) 우찬제, 앞의 글, p.95.

허리께까지 차오르는 물. 그 부드러움. 메기며 붕어들이 숨어 있던 수풀. 우리가 피리라고 불렀던 날씬한 은빛 물고기들이 물 속에서 툭툭, 거릴 때면 언니, 저기…하며 웃던 목소리. 생각해 보면 그 마을엔 어디에나 그렇게 부드러운 물이 흘러 다녔다. (…중략…) 머리가 헝클어지면 얼굴을 하늘에 두고 물위에 동동 더 한참 떠내려가면 빗살이 고운 빗 가지고 빗질을 오래 한 것보다 훨씬 더 단정하게 머리 손질이 되기도 했지. 물 속에 여름날들. (『그는 언제 오는가』, p.53)

부드러운 물과 웃음소리, 은빛 물고기들, 물 속에서 빗겨지던 머리 등. 고향으로 상징화된 자연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녀 소설의 비극성은 많은 경우, 고향의 상실로 떠오르는 생태계의 파손, 녹색 이미지의 파편화에 연결되어 있다. ‘그녀들’의 고통은 낙원인 고향을 떠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곳을 꿈꾸기 때문에 빗어지는데, 이는 작품 속에 늘 나타나는 녹색 이미지, 생태계의 생명성으로 그려지면서도 그것이 도시 문명과 포클레인에 의해 찢겨지는 파편화 현상으로 착색된다.

그럼에도 그녀는 문학을 통해 기계문명의 파괴를 뛰어넘으려는 소망을 지니고 있다.

……시여 제발 여기로 와다오. 저것들…… 드릴……
 해머…… 소리들을 가볍게 넘어서…… 서사의 안팎을
 잃어버리고 짓이겨지는 내게로. (『외판방』, p.121)

5. ‘자매애’에의 동경과 단절

신경숙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현상은 여자들끼리의 밀접한 유대관계인데 이성간의 사랑은 대개 관념적이고 상처로 다가

오는데 비해, 그녀들의 관계는 아주 구체적이며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하게 밀착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대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단절되게 된다.

「그는 언제 오는가」에서 시집 읽기를 좋아했던 여동생 미란은 마음에 쪽 와 닿는 시를 발견할 때면 속삭임과 함께 언니의 어깨나 가슴에 따듯한 뺨을 부벼댔다.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던 미란과 그 앨 물끄러미 바라보던 언니와의 관계는 각별한 것으로, 세상에 단 둘이 남은 자매가 느끼는 일체감은 일반적인 가족애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머니처럼 따사롭게 영원히 보살피려고 하고 싶었던 동생은 갑작스레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만다.

미로 같은 서른 일곱 개의 방이 있는 집에서 만난 『외딴 방』의 희재 언니는 의붓아버지 밑에 있는 동생을 위해 의상실에 이중 취직을 해야 했다. 거기서 만난 외로운 재단사와 사랑을 하다가 임신한 아이를 거부하는 남자에게 상처를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 희재 언니는, 언니가 없던 주인공에게 친언니 이상의 정서적 유대를 갖게 했다. 그런데 휴가를 떠난다면서 자살 후 주인공에게 방문을 잠그게 해 사후까지도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자신을 학대한 모습은 그녀에게 너무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거부된 사랑으로 인한 죽음이 자매애의 단절을 가져 온 것이다.

『깊은 슬픔』에서 만나게 되는 은서와 화연의 친밀감과 끈끈한 정서적 유대도 남다르다. 사춘과의 금지된 사랑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여인 화연과 그녀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는 은서의 관계는 거의 동성애적이다. 이는 그들이 이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강요하는 사회질서 속에서 “여성이 동일시할 수 있는 경험(woman-identified experience)”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¹⁴⁾ 철저한 동일화와 현신적인 보살핌으로 그녀들을

14) 팸 코리스, 강희원 역, 앞의 책, p.280.

하나로 묶는 것은,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어긋난 세계에 대한 경험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외롭고 힘없는 존재에 대해 유별난 동정과 배려를 보이는 그녀들의 행동은 유약한 생명에게 ‘대기하는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의 심리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¹⁵⁾ 보다 적극적인 관계로 묘사된 그들은 서로에게 베푸는 모성적 사랑을 통해 위로 받지만 화연 역시 떠나가고야 만다.

「배드민턴 치는 여자」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던 야생 미나리 군락지에서 영상에도 두 여자 아이가 등장한다. 아홉 살이나 열 살 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의 빛은 품과 ‘그 애’의 어리고 부드러운 몸에 대한 기억. 한 동안의 간지럽힘과 희열, 하지만 곧 돌아오고 만 쓰라린 상처와 그 애의 차가운 떨시. 이는 여주인공에게, 그녀가 원하는 사랑은 결코 이를 수 없다는 상실의 아픔으로 떠오른다. ‘그녀들’간의 사랑은 부도덕하고 병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게 아름다운 진한 녹색 이미지로 그려졌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 모든 것이 되고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 생각하기를 원하는 ‘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그래서 ‘너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할 거야’하던 마음은 ‘뺨을 맞는 아픔’으로 되돌아 왔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에 대한 기대로 생긴 상처는 다른 사랑마저 포기하게 하였다.

이처럼 사랑만으로 살고자 하는 신경숙 소설의 인물들은 이성을 향한 사랑에 실패했거나 금지된 사랑으로 인한 고통받을 때 주변의 여성인물과의 각별한 자매애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지만, 이는 곧 상대방의 자살로 단절되고야 만다. 여성들간의 친밀한 유대는 이성애가 지배적인 현실 세계 내의 거부감과 마찬가지로 결국 단절되고 말지만, 그의 작품에는 메리 델 리가 주장한, 여성 중심으로 개발된 새로운 언어인 ‘레즈비언 연속체(Lesbian Continuum)¹⁶⁾’의 지향이 깃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15) 황종연, 앞의 글, p.48.

16) 레즈비언 연속체는 다른 여성과 반드시 성적 경험을 갖지 않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여성 동일시의 여성의 자세와 열정을 갖음으로써 여성 속에 들어 있는 긍정적이며 생명력 넘치는 여성의 풍요한 내면 생활, 남성 독재에 대한 여성의 결

6. 맺음말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경숙의 여성 인물들이나 화자들은 가부장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여성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섬세하고 곱고 조용하고 민감하며 따스하다. 그렇지만 그녀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다가 남성 사회의 폭력성에 의해 늘 상처받고 찢기운다. 자연과 친화는 더 이상 불가능하고 그녀들은 고향인 시골을 떠나 남성의 세계인 도시 한 복판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절대로 여성적 원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들은 여성들끼리의 관계를 통해 완전한 사랑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 역시 상대방의 죽음에 의해 좌절되고야 만다.

한 편으로 ‘타자성’을 구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성으로서의 체험을 토대로 한 여성의식을 강하게 드러내 보이는가 하면, 또 한 편으로는 그 반대 방향으로의 진행도 볼 수 있었다. 이는 현실을 직시하고 통찰하는 능력이 있는 여성 작가라면 남성중심 세계와 충돌하는 여성의식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이 자신의 글 속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왜 쓰는가’에 대해 늘상 한없이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신경숙의 소설에는 이처럼 그 어떤 문제나 관심사도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태도로 형상화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소설들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들에 특별히 주목함으로써 머뭇거림 속에 내재된 단호함을 추적할 수 있었다. 단호함은 그녀 자신의 여성체험에서 우러난 페미니즘의 메시지와 관련되고 있었고, 머뭇거림은 그것을 좌절케 하고 억압하는 남성 세계의 힘을 인식하는 현실 감각에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타자화’된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 ‘타자화’에 반발하는 이중 전략과 감각적이고 섬세한 문체의 성공적인 만남이 신경숙 소설의 문학성과 대중성의 동시적 획득을 가능

속 등을 통해 여성 역사와 심리의 폭을 넓혀갈 수 있다는 개념이다. 연점숙, 「억압적 이성애의 거부와 대안-레즈비언 페미니즘」,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페미니즘-어제와 오늘』(민음사, 2000), p.310~311.

케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갑희, 「능욕과 식민의 역사 다시 쓰기」, 『21세기 문학』 3호, 1998. 봄·여름, 1998.
- 김정란, 「비평정신과 여성시-90년대 여성시 운동의 성과와 가능성」, 『문예중앙』, 1999. 가을.
- 김혜숙, 「여성주의 인식론과 한국 여성 철학의 전망」, 『현대비평과 이론』 16호, 1988. 가을·겨울, 한신문화사, 1998.
- 뤼스 이리가라이, 박정오 역, 『나, 너, 우리-차이의 문화를 위하여』, 동문선, 1996.
- 마르쿠제, 김인환 역, 『에로스와 문명 : 프로이트 이론의 철학적 연구』, 나남출판사, 1989.
- 맥락과 비평 현대문학연구회 편저, 『라깅과 문학』, 예림기획, 1998.
- 박혜경, 「사인화(私人化)된 세계 속에서 여성의 자기 정체성 찾기」, 『문학동네』, 1995. 가을.
- 방미경, 「빈집, 글쓰기의 시원-신경숙의 글쓰기에 대하여」, 『현대비평과 이론』 15호, 1998.봄·여름, 한신문화사, 1998.
- 서동진, 「성혁명, 초월이나 전략이나-20세기, 현대성 그리고 성을 초극하며」, 『문학사상』, 1999.4.
- 송명희 외, 『여성의 눈으로 읽는 문화-TV드라마, 수필, 영화, 연극, 희곡, 소설』, 새미, 1997.
- 송명희 외, 『페미니즘과 우리 시대의 성담론』, 새미, 1998.
- 심정순 편저, 『‘여성의 눈’으로 본 섹슈얼리티와 대중문화』, 동인, 1999.
- 안정숙, 「<페넬로페>-여성의 목소리와 여성적 글쓰기」, 『영미문학 페미니즘』 제 4집, 1997.
- 연접숙, 「억압적 이성애의 거부와 대안-레즈비언 페미니즘」,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페미니즘-어제와 오늘』, 민음사, 2000.
- 우찬재, 「꿈의 환각과 정치적 무의식」, 『세계의 문학』 90호, 1998. 겨울, 민음사, 1998.
- _____, 『타자의 목소리-세기말 시간의식과 타자성의 문학』, 문학동네, 1996.
- 이성욱, 「내면, 타자의 복원과 타자의 배제」, 『세계의 문학』 85호, 1997. 가을.

- 이소희, 「<핸드메이드 이야기> 연구 : 성(sexuality)과 친밀성의 재현을 중심으로」, 『현대영미소설』 제5권 2호, 1998. 겨울.
- 이현나, 「부재에 관한 짧은 얘기-신경숙의 <마당에 관한 짧은 얘기>」, 『라깅과 문학』, 예림기획, 1998.
- 신수정, 「환멸의 사막을 건너는 여성적 글쓰기의 세 가지 유형」, 『문학동네』, 1995. 가을.
- 장(윤)필화, 『여성/몸/성』, 또하나의 문화, 1999.
- 조르쥬 바파이유, 조한경 역, 『에로티즘』, 민음사, 1999.
- 팸 모리스,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문화와 철학』, 동녘, 1999.
- 황종연, 「여성소설과 전설의 우물」, 『문학동네』, 1995. 가을.

Abstract

Reading Novels Written by Shin, Gyung-Sook through Feminism

Song, Ji-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ovels written by Shin, Gyung-Sook from the viewpoint of Feminism. We know well feminine characters and atmosphere in her popular novels. Therefore, a lot of readers don't think that her novels are involved in Feminism.

But this study focused that the woman writer had 'woman-identified experience' and it should be exposed to her novels. It's natural that the woman writer use double strategy because she should not only survive in men-centered world but also express her own experience.

In *Deep Sorrow*, she described a clash of principles between male characters who value power and success in life and female characters who want to live in love only. In *The Woman Playing Badminton*, I could find

the sexuality of unmarried woman, society that pressed it, and the frustration of the woman. The woman character wanted to diffuse her sexual needs but feared evaluation of conservative society. 'The woman playing badminton' has a positive sexual image. That's why men workers in under ground tease her.

Additionally, her novels are very sensitive of the voice and colors of nature. Usually good characters are rooted in the country and nature in the texts. She emphasizes on the happiness in nature when young many times. Eco-feminist factors dominate her novels. And she believes in 'sisterhood'. Most of female characters in the texts have good relationship, console each other, and protect from other men's attack. I think that means 'Lesbian Continuum'.

As I mentioned before, I could find the feminist factors in Shin, Gyung-Sook's novels which were known for feminine novels.

